

정신증적척도에 의한 대학신입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학교실
김진성 · 이종범 · 정성덕 · 박병탁

서 론

정신증적 경향이라 함은 정신병적인 기질을 가졌거나 정신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정신병의 초기 단계에 놓인 상태일수도 있겠고 정신병적인 경향을 보이는 인격을 가진 경우도 해당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적절한 지적능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이거나 직업적 적응의 곤란이 점차 심하게 되어 일상 대인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기 쉽다. 여기에는 환경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급격한 정신병으로까지 발병될수 있겠고 특별한 환경적인 스트레스 없이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서서히 인격성장이 붕괴되어 정신병적인 상태에까지 도달 될 수 있다.¹⁾

정신병적인 기질이나 정신병에 걸리기 쉬운 인격이 형성되는데 대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어왔다. 유전적인 요인 내분비물이나 신경전달물질을 포함하는 생물학적 요인, 신경병리학적인 요인, 인지-지각능력의 장애 및 역동적인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²⁾ 특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역동적인 이론이다. 이 역동적인 이론 중에서 Klein³⁾과 Margaret Mahler^{4,5)} 등은 자아기능의 혼란이 중요한 원인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는데 Klein은 매우 어린시절에 욕동을 조절하고 환경에서 대상과 관계하고 외적인 현실에 반응하고 인지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아기능에 있어서 특히 생물학적인 체질적인 결손이 있을 경우 어린이들은 어머니와의 관계형성에서 혼란에 빠지기 쉬우며 이런 자아기능 중 특히 유아에 있어서 끊임없이 강렬한 적개심과 공격심을 가지는 욕동조절에 혼란이 있을 경우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형성에 왜곡과 붕괴가 초래되고 이것이 뒤에 원만한 인격을 실패로 야

기한다고 주장하였다. Margaret Mahler는 정신병에 걸리기 쉬운 인격을 형성하는데 어머니와의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을 강조하고 특히 대상의 불변성(object-constancy)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시기를 출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로 잡았다. 이 시기에 특히 어머니와 같이 보살펴 주는 사람이 일정하고 끊임없는 보살핌이 결여될 때 대상에 대한 불변성이 형성되지 않고 어머니와의 분리가 힘들게 된 나머지 불신임이 생기게 되고 자기의 독자적 감각을 형성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성장하면서 환경적인 자극에 대처하기 힘들어 현실로 부터 철수하거나 인격이 퇴행되어 정신병적인 상태로 되기 쉽다고 주장하였다. 또 Harry Stack Sullivan⁷⁾은 상호관계(interpersonal-relationship)를 중시했는데 그는 정신질환은 상호관계의 실패로부터 온다고 보고 정신질환 혹은 안녕은 태어나서부터 개인과 지속적인 상호작용(interaction)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 가족에 대한 가설(family hypothesis)⁸⁻¹¹⁾로서 정신분열증 환자의 가족들은 가족 상호간에 그들의 의사소통의 양상, 정신병리, 그리고 관계형성에 장애가 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가족내의 의사소통이 심하게 장애가 없는 한 정신분열증은 걸리지 않는다고까지 하였다.¹²⁾ 이러한 정신증적 경향이 심한 사람들은 신경증적인 경향을 가지는 경우와는 달리 인격의 혼란이 심하고 주로, 심리적방어기전도 부정(denial), 퇴행(regression), 병적인 투사(pathological projection), 병적인 동일시(pathological identification) 등을 잘 사용하여 인격의 통정기능이 사회적으로 조직화 되기 힘들고 현실판단 기능의 장애를 보이고 억압의 능력이 힘들며 심한 경우 사고의 현저한 장애까지 생기게 된다.¹³⁾

* 본 논문의 요지는 1986년 제29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음.

정신병적인 상태인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정신 증은 그 호발연령이 20대 전후로 전체인구 중 약 0.5~1.2%가량으로 합산할 수 있다.¹⁴⁾ 한편 대학 신입생들은 정신병이 호발할 수 있는 초발 연령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증적 경향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들과 관계가 깊은 사회 정신의학적 요인을 비교 분석한 후 정신증적 경향의 정도가 심하여 임상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을 미리 파악하여 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본 조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신입생들이 그들의 일생중 자아확립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대학생활을 보다 원활히 영위하여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86년 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영남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Derogatis 등이 고안한 간이 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 list-90 중 Psychoticism scale ; 이하 정신증척도로 약함)¹⁵⁾(부표참조)에 의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본 대학 정신과학 교실원들의 협조로 실시하였다.

총 응답자 수는 4834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85.6%에 해당했고 그 중 남학생은 총 4061명 중

86.2%인 3499명이었고 여학생은 총 1584명 중 84.3%인 1335명이었다(표 1). 연령별로는 17세 이하가 남학생이 15.2%, 여학생이 23.0%, 18세가 남학생이 47.1%, 여학생이 57.7%, 20세가 남학생이 8.5%, 여학생이 2.4%, 21세 이상 남학생이 5.0%, 여학생이 1.6%였다(표 2).

Table 2. Age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freshmen by sex

Age	Male (N=3,499)	Female (N=1,335)
	No. of subjects(%)	No. of subjects(%)
-17	533(15.2)	307(23.0)
18	1649(47.1)	770(57.7)
19	845(24.2)	205(15.4)
20	297(8.5)	32(2.4)
21-	175(5.0)	21(1.6)

본 조사에서 사용한 정신증척도는 9가지 종류의 정신병적 상태를 파악하도록 고안되어 있는 객관식 질문법 검사인데 그 중 정신증적 경향(psychoticism : 정신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립적이고 철수적인 경향이 두드러지는 정신분열병적인 성격(schizoid personality)의 특징인 소외감(alienation) 및 고독감(loneliness)과 Schneider가 제시한 정신분열증의 주 증상 중

Table 1. Distribution of respondents in the freshmen by college and sexes

College	No. of attended students			Respondents		
	Male	Female	Both	Male (%)	Female (%)	Both (%)
Liberal Arts	323	336	659	262(81.1)	287(85.4)	549(83.3)
Science	250	184	434	198(79.2)	161(87.5)	359(82.7)
Engineering	1,282	93	1,375	1,124(87.7)	82(88.2)	1,206(87.7)
Law & Political Science	249	14	263	233(93.6)	14(100)	247(93.9)
Commerce & Economics	473	16	489	441(93.2)	13(81.3)	454(92.8)
Medicine	67	17	84	26(38.8)	5(29.4)	31(36.9)
Pharmacy	19	55	74	15(78.9)	46(83.6)	61(82.4)
Agriculture	332	128	460	296(89.2)	109(85.2)	405(88.0)
Home Economics	2	195	197	2(100)	177(90.8)	179(90.0)
Education	111	205	316	96(86.5)	186(90.7)	282(89.2)
Fine Arts	80	83	163	66(82.5)	65(78.3)	131(80.4)
Musics	39	150	189	33(84.6)	105(70.0)	138(73.0)
Evening Programs	834	108	942	707(84.8)	85(78.7)	792(84.1)
Total	4,061	1,584	5,645	3,499(86.2)	1,335(84.3)	4,834(85.6)

조정망상(idea of being controled), 환청(auditory hallucination), 관계망상(idea of reference) 및 사고 주입망상(thought insertion) 등과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의 전구증상(prodromal symptoms)이라고 볼 수 있는 성문제(sexual problem)로 인한 지나친 고민,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정서 불균형(emotional instability) 및 죄책감(guilty feelin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chneider는 그가 말한 주 증상이 한가지 이상 분명히 있을 경우는 이미 정신병에 돌입된 상태라고 간주했다.¹⁶⁾ 이와같이 10개의 항목은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5점까지 평가하여 총점이 10점에서 50점까지 측정되는데 고득점일수록 정신증적 경향이 심한 상태라고 보는 척도이다. 이는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어 그 신뢰도와¹⁷⁾ 타당도가^{18,19)} 입증된 바 있다. 또한 본 조사에서는 총점이 20점 이상일 경우를 정신질환 발병가능(probability of incidence)의 유의한 수준으로 삼았으며¹⁷⁻¹⁹⁾ 이들 고득점 학생들은 따로 추출하며 전체 집단과 백분율로 평가하여 비교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하여 필요에 따라 변량분석(ANOVA)과 t 검증을 시행하였다.

성 적

정신증 척도로 평가된 신입생의 총점 및 항목

별 성적은 다음과 같다(표 3). 남학생의 평균총점은 46.2±4.01이었고 여학생의 평균총점은 5.03±3.89로 여학생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항목별 성적은 남학생에서 높이 평가한 항목은 상위로 부터 ① 소외감(alienation) ② 고독감(lonliness) ③ 건강염려증(hypochondriasis) ④ 정서불균형(emotional instability) 등의 순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상위 4개 항목은 소외감을 제외하고는 순서만 틀릴뿐 항목의 내용은 동일했다. 남학생이 평가한 하위 수준의 항목은 ① 환청(auditory hallucination) ② 조정망상(idea of being controled) ③ 사고주입(thought insertion) 등이었고 여학생의 경우 ① 소외감 ② 성문제(sexual problem) ③ 환청 등으로 환청을 제외하고는 항목의 내용이 달랐다.

신입생이 평가한 정신증적 성격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4). 즉, 20점 이상의 고득점자는 남학생이

Table 4. Total score distribution of psychoticism scale in the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en

Total	Male (N=3499) No. (%)	Female (N=1335) No. (%)
0-9	3976(88)	1165(87.3)
10-19	410(11.7)	163(12.2)
20-40	2(0.1)	0
over 20	13(0.4)	7(0.5)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scores of psychoticism scale in male and female college freshmen

Items of psychoticism	Male(N=3499) M±SD	Female(N=1335) M±SD
1. Some one else control thoughts	0.39±0.65	0.41±0.62
2. Hearing voices others don't (hear)	0.14±0.43	0.15±0.42
3. Others aware of private thoughts	0.42±0.62	0.47±0.63*
4. Having thoughts not your own	0.40±0.68	0.47±0.68**
5. Feeling lonely with people	0.71±0.84	1.00±0.85***
6. Thoughts about sex that bother you	0.45±0.69	0.17±0.42
7. Idea you should be punished	0.51±0.74	0.54±0.71
8. Idea something wrong with body	0.54±0.76	0.55±0.72
9. Never feeling close to another	0.56±0.77	0.71±0.83***
10. Idea something wrong with mind	0.51±0.75	0.57±0.76*
Mean Total	4.62 4.01	5.03 3.89**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05, ** : P < 0.01, *** < 0.001

M : mean

13명(0.4%), 여학생이 7명(0.5%)로 여학생이 약간 높은율을 보였다.

사회 정신의학적 요인과 정신증 성적의 상호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5). 먼저 대학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경제과(home economics)가 평균 총점이 8.5로 유의할 정도로 높았으나 사례수가 적어 통계적 의미는 없다고 본다. 여학생의 경우 약학대(pharmacy)가 평균총점이 5.9로서 가장 높았다.

가정환경에 대한 만족도, 소속대학 선택에 따른 만족도, 소속학과에 대한 만족도, 부모에 대한 친숙도에 따른 정신증 성적은 불만일 경우에 남녀모두 유의하게 높은 정신증 성적($P < 0.001$) 및 고득점율을 보였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자아상에 대한 정신증적 성적은 비판적인 경우에 높

은 정신증 성적($P < 0.001$) 및 높은 고득점율을 보였다.

종교별로는 남녀 모두 개신교일 경우가 높은 정신증 성적(각각 $P < 0.05, P < 0.01$) 및 고득점율을 보였으며 성장지별에 따른 정신증 성적은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남학생이 높은 정신증 성적($P < 0.05$)을 보였다.

학비부담자에 따른 정신증 성적에는 여학생의 경우 자기부담일 경우에 높은 정신증 성적($P < 0.05$) 및 고득점율을 보였다. 남녀 모두 출신학교 소재지, 현거주지 및 월잡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여학생의 경우 성장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남학생의 경우는 학비 부담자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5. Mean scores of psychoticism scale in the college freshmen by psychosocial factors and sexes

Factors	Male(N=3,499)			Female(N=1,335)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0 & over (%)	No. of subjects (%)	Mean score	No. of subjects score 20 & over (%)
College						
Liberal arts	262(7.5)	5.3	3(1.2)	287(21.5)	5.3	3(1.1)
Science	198(5.7)	4.6	0(0.0)	161(12.1)	5.2	0(0.0)
Engineering	1,124(32.1)	4.6	4(0.4)	82(6.1)	4.4	1(1.2)
Law and political science	233(6.7)	4.5	0(0.0)	14(1.1)	4.9	0(0.0)
Commerce and Economics	441(2.6)	4.7	2(0.5)	13(1.0)	4.5	0(0.0)
Medicine	15(0.7)	3.0	0(0.0)	5(0.4)	3.6	0(0.0)
Pharmacy	15(0.4)	6.1	1(6.7)	46(3.5)	5.9	1(2.1)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296(8.5)	5.0	1(0.3)	109(8.2)	5.1	1(0.9)
Home Economics	2(0.1)	8.5	0(0.0)	177(13.3)	4.9	0(0.0)
Education	96(2.7)	3.9	0(0.0)	186(13.9)	5.4	0(0.0)
Fine Arts	66(1.9)	3.6	0(0.0)	65(4.9)	4.1	1(1.5)
Music	33(0.9)	4.9	0(0.0)	105(7.9)	4.2	0(0.0)
Evening Programs	707(20.2)	4.6	2(0.3)	85(6.4)	5.2	0(0.0)
Home atmosphere						
Dissatisfied	59(1.7)	8.1	3(5.1)	12(0.9)	12.4	2(16.7)
Mediate	1,507(43.1)	5.5	5(0.3)	475(35.6)	6.2	2(0.4)
Satisfied	1,933(55.2)	3.9	5(0.3)	848(63.5)	4.3	3(0.4)
Maturation location						
Myun	839(24.0)	4.7	3(0.4)	170(12.7)	5.4	2(1.2)
Up	379(10.8)	4.8	0(0.0)	120(9.0)	5.3	1(0.8)
City	525(15.0)	5.0	2(0.4)	243(18.2)	4.6	0(0.0)

Large city	1,756(50.2)	4.4	8(0.5)	802(60.1)	5.1	4(0.5)
Location of high school from which graduated						
Myun	116(3.3)	4.0	0(0.0)	20(1.5)	5.6	0(0.0)
Up	157(4.5)	5.0	0(0.0)	67(5.0)	5.2	1(1.5)
City	638(18.2)	4.8	2(0.3)	246(18.4)	4.8	0(0.0)
Large city	2,588(74.0)	4.6	11(0.4)	1,002(75.1)	5.1	6(0.6)
Residence						
Own house	2,901(82.9)	4.6	11(0.4)	1,218(91.2)	5.0	6(0.5)
Relatives & boarding	181(5.2)	5.1	1(0.6)	26(2.0)	4.5	0(0.0)
Self-cooking	358(10.2)	4.6	1(0.3)	85(6.4)	5.4	1(1.2)
Dormitory	22(0.6)	2.8	0(0.0)	1(0.1)	13.0	0(0.0)
Others	37(1.1)	5.1	0(0.0)	5(0.4)	4.6	0(0.0)
Religion						
Protestant	664(19.0)	5.0	3(0.5)	335(25.1)	5.6	1(0.3)
Catholic	237(6.8)	4.7	0(0.0)	141(10.6)	5.5	3(2.1)
Buddist	786(22.5)	4.5	3(0.4)	251(18.8)	4.5	0(0.0)
Others	17(0.5)	3.6	0(0.0)	3(0.2)	3.7	0(0.0)
None	1,795(51.3)	4.5	7(0.4)	605(45.3)	4.9	3(0.5)
Satisfaction with college						
Dissatisfied	125(3.6)	6.3	1(0.8)	23(1.7)	6.2	0(0.0)
Mediate	2,277(65.1)	4.9	8(0.4)	826(61.9)	5.4	5(0.6)
Satisfied	1,097(31.4)	4.5	7(0.4)	486(36.4)	4.3	2(0.4)
Satisfaction with department						
Dissatisfied	86(2.5)	6.8	1(1.2)	31(2.3)	6.7	0(0.0)
Mediate	1,165(33.3)	4.9	4(0.3)	434(32.5)	5.3	0(0.0)
Satisfied	2,248(64.3)	4.4	8(0.4)	870(65.2)	4.9	7(0.8)
Past self-image						
Pessimistic	323(9.2)	7.0	3(0.9)	45(3.4)	9.2	1(2.2)
Uncertain	2,423(69.3)	4.4	4(0.2)	905(67.8)	5.0	3(0.3)
Optimistic	753(21.5)	4.2	6(0.8)	385(28.8)	4.6	3(0.8)
Present self-image						
Pessimistic	139(4.0)	8.2	6(4.3)	25(1.9)	10.0	3(12.0)
Uncertain	2,581(73.8)	4.6	1(0.0)	1,000(74.9)	5.1	3(0.3)
Optimistic	779(22.3)	3.9	6(0.8)	310(23.2)	4.3	1(0.3)
Future self-image						
Pessimistic	41(1.2)	7.8	2(4.9)	9(0.7)	9.1	1(11.1)
Uncertain	1,446(41.3)	4.8	5(0.4)	622(46.6)	5.1	3(0.5)
Optimistic	2,012(57.5)	4.4	6(0.3)	704(52.7)	4.9	3(0.4)
Educational fee from						
Parents	3,236(92.5)	4.6	12(0.4)	1,260(94.4)	5.0	6(0.5)

Brothers & sisters	115(3.3)	4.5	0(0.0)	23(1.7)	4.8	0(0.0)
Scholarship fund	66(1.9)	3.8	1(1.5)	32(2.4)	4.3	0(0.0)
Self	82(2.3)	4.4	0(0.0)	20(1.5)	7.4	1(5.0)
Spending money per month(won)						
Under 10,000	672(19.2)	4.6	4(0.6)	212(15.9)	5.2	0(0.0)
10,000-29,000	1,889(54.0)	4.7	5(0.3)	822(61.6)	5.0	7(0.9)
30,000-49,000	727(20.8)	4.6	3(0.4)	241(18.1)	5.1	0(0.0)
50,000-69,000	145(4.1)	4.1	1(0.7)	44(3.3)	4.9	0(0.0)
70,000-90,000	37(1.1)	4.1	0(0.0)	12(0.9)	4.4	0(0.0)
Over 100,000	29(0.8)	4.7	0(0.0)	4(0.3)	6.8	0(0.0)
Familiarity of parents						
Dissatisfied	75(2.1)	7.6	3(4.0)	13(1.0)	1.9	1(7.7)
Mediate	1,217(34.8)	5.5	5(0.4)	415(31.1)	6.1	3(0.7)
Satisfied	2,207(63.1)	4.0	5(0.2)	907(67.9)	4.5	3(0.3)

* : P < 0.05 ** : P < 0.01 *** : P < 0.001

고 찰

본 조사 결과에서 남녀 신입생의 정신증 평균 총점이 남학생 : 4.62 ± 4.01, 여학생 : 5.03 ± 3.89로서 여대생이 남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적을 보였다. 이는 김¹⁷⁾ 등이 조사한 정상인의 반응특성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Derogatis 등의 표준화집단에서의 결과¹⁸⁾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는 또한 재학생²⁰⁾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의 경우 남녀의 비율이 동등하나¹⁴⁾ 조울증은 여성의 발병이 다소 높다는 것과 정신증의 기본병리인 불안 및 우울도 본 조사결과 여학생에서 높으므로 정신증 성적도 그에따라 여학생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정신증적 경향의 항목별 성적에서 남학생이 높게 평가한 항목은 고독감, 소외감, 건강염려증, 죄책감 등으로 여학생의 경우와 상위순서만 다를뿐 항목은 일치한다. 이도 재학생²⁰⁾의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이는 한국인의 정신증의 증상이 남녀모두 같은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증적 경향의 점수분포는 20점이상의 고득점자가 남학생이 13명(0.4%), 여학생이 7명(0.5%)으로서 이는 재학생의 결과²⁰⁾(남학생 2.4%, 여학생 3.2%) 보다 훨씬 낮으며 일반인의 정신분열증(10.2~1%), 조울성신병(0.4~1.2%)의 유병율¹¹⁾의 범주내에 해당된다고 보겠다.

정신분열증의 시작연령이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서 가장 빈번하는데 대학신입생들이 이 시기에 해당되지만 재학생의 성적결과보다 발병율이 훨씬 낮다는데 대해서는 앞으로 더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나 고등학교까지 단조로운 대학입시 준비만 하다가 본대학에 입학한 시점에서 신입생에게 본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과 재학생은 6개월 이상 대학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사회여건속에서 새로운 문제점과 부딪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다.

사회 정신의학 요인을 정신증 성적과 연관시켜 볼때 성장지별로는 남자의 경우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학생에서 정신증적 경향이 유의하게 (P < 0.05) 높았는데 이는 재학생의 결과²⁰⁾와도 일치한다.

이는 정신분열증이 일반적으로 저사회·경제적인 계층에서 더 많다¹⁴⁾고 말한 점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종교별로 볼때 남녀모두 기독교에서(각각 P < 0.05, P < 0.01) 유의하게 정신증적 성적이 높게 나왔다. 이는 한국의 전통적 종교관이 서구종교관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 가치관을 정립하려는 대학생들이 전통을 고수하려는 대학생들 보다 갈등이 더 많을 것으로 추론되며 이는 이민자들 중에 정신증발병이 높다는 보고와 비교해 볼만하다²¹⁾

학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경우 정신증적성적이

높게($P < 0.05$) 나왔는데 특히 여자군에서 유의($P < 0.05$)하였다. 이는 저 사회 경제적인 계급에 속한 사람에서 더 정신증의 발생이 많다는 것과¹⁴⁾ 경제적인 곤란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부담을 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²²⁾

남녀모두 가정에 대해서 소속대학 및 소속학과, 부모와의 친숙도에 대해서, 불만인 경우와(각각 $P < 0.001$, $P < 0.001$, $P < 0.001$, $P < 0.001$)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자아상이 비관적인 경우(각각 $P < 0.001$, $P < 0.001$, $P < 0.001$) 유의하게 정신증적 경향이 높게 나왔다. 이는 재학생²⁰⁾의 결과와도 일치하며 신입생의 불안성적, 우울성적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부정적인 생활태도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자아주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기 쉬우며 사춘기를 지나면서 주체성의 혼동(identity confusion)은 성인기에 정신분열증의 핵심적인 문제점이라는 이론을 참고해볼 만하다. 또 이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긍정적인 자기 가치관의 정립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 적절히 수행되었을 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 약

영남대학교 신입생 4834명(남학생 : 3499명, 여학생 : 1335명)을 대상으로 1986년 1월부터 1986년 2월까지 Derogatis의 정신증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신증 척도의 평균총점은 남학생이 4.62 ± 4.01 이었고 여학생은 5.03 ± 3.89 로 여학생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였다($P < 0.001$).

항목별성적은 남녀학생 모두에서 소외감, 건강염려증, 죄책감 등의 성적이 높았고 남녀모두 환경에서 성적이 높았다. 정신증의 성적분포는 20점 이상 고득점자가 남학생이 13명(0.4%), 여학생이 7명(0.5%)로 총(0.41)였다.

정신증성적과 관련된 사회정신의학적 요인들중 남녀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친것은 가정환경, 소속대학선택과 현소속학과에 대한 불만족($P < 0.001$), 부모에 대한 친숙도에 대해서 불만일 경우($P < 0.001$)와 개신교를 믿는 학생일 경우(각각 $P < 0.05$, $P < 0.01$) 등에서 유

의하게 높은 정신증성적을 보였다. 또 남학생 단독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중소도시에서 성장한 경우($P < 0.05$)이고, 여학생 단독으로 유의한 성적은 학비가 자기부담일 경우($P < 0.05$)였다.

참 고 문 헌

1.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p. 355-359.
2.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p. 349-358.
3. Klein, M. : The significance of early anxiety situations in the development of the ego, in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ed. 3rd (Trans A Strachey), London, Hogarth Press, 1948.
4. Mahler, M.S. and Furer, M. : Observations in research regarding the symbiotic syndrome of infantile psychosis, Psychoanal. Q., 29 : 317, 1960.
5. Mahler, M.S. : On human symbiosis and the vicissitudes of individuation,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8.
6. Sullivan, H.S. :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3.
7. Sullivan, H.S. : Conceptions of modern psychiatry, New York, Norton, 1953.
8. Lidz, T. : The intrafamilial environment of schizophrenic patients, II. Marital schism and marital skew, Am. J. Psychiatry, 114 : 241-248, 1957.
9. Lidz, T. : The origins and treatment of schizophrenic disorders, New York, Basic Books, 1973.
10. Bateson, G. : Towards a theory of schizophrenia, Behav. Sci., 1 : 251-264, 1956.
11. Wynne, L.C. : Pseudomutuality in the family relations of schizophrenics, Psychiatry, 21 : 205-220, 1958.
12. Sederer, L.I. : Inpatient Psychiatry, Diagnosis and Treatment, 2nd Ed., Williams and Wilkins, Baltimore, Waverly Press, 1986, pp.

- 60-61.
13.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p. 464-465.
 14.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p. 347-349, pp. 405-410.
 15. Derogatis, L.R., Lipman, R.S. and Covi, L. : SCL-90 : An outpatient psychiatric rating scale-Preliminary report, Psychopharmacol. Bull., P. 13, 27, 1973.
 16. Mellor, C.S. : First rank symptoms of schizophrenia, Brit. J. Psychiatry, 117 : 15-23, 1970.
 17. 김광일, 원호택 :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1. 정상인의 반응 특성, 신경정신의학, 17 : 449-458, 1978.
 18. Derogatis, L.R. and Cleary, P.A. : Factorial invariance across gender for the primary symptom dimensions of the SCL-90, Brit. J. Clin. Psychiatry, 16 : 347-356, 1976.
 19. 김재환, 김광일 : 간이 정신진단검사(SCL-90-R)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부산의대잡지 21(2) : 303-310, 1981.
 20. 서혜수, 이종훈, 정성덕 : 정신증 척도에 의한 대학생의 정신건강 평가, 영남의대 학술지, 2(1) : 149-159, 1985.
 21. Arieti, S. : Interpretation of Schizophrenia, 2nd Ed., New York, basic Books, 1974, pp. 494-495.
 22. Kolb, L.C. and Brodie, H.K. : Modern Clinical Psychiatry, 10th Ed., W.B. Saunders Co., Philadelphia, 1982, p. 467.

- Abstract -

A Study on Psychoticism in College Freshmen

Jin Sung Kim, Jong Bum Lee, Seung Douk Cheung, and Byung Tak Park

*Department of Psychiatry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The authors studied psychoticism, using Derogatis's SCL-90, in the subjects of 3,499 male and 1,335 female college freshmen of Yeungnam University.

The authors collected the reports of Self-Rating Psychoticism Scale during the periods from January to February, 1986, and applied ANOVA and t-test on psychoticism scores in order to compare them between various psychosocial factors, and sex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mean averages of total psychoticism scores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 male students scored $4.62+4.01$, female students scored $5.03+3.89$ ($P < 0.01$).

Thirteen male students(0.4%) showed high psychoticism scores of 20 or higher, while seven female students(0.5%) showed the same scores.

The male students who have matured in city and the female students whose educational fees were paid by self, showed higher level of psychoticism scores ($P < 0.05$).

The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believed protestantism showed higher level of psychoticism scores (respectively $P < 0.05$, $P < 0.01$).

There was a strong tendency toward higher psychoticism scores in the students who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home atmosphere, college, department and familiarity of parents and those who had pessimistic views of self in the past, present or future in both groups ($P < 0.001$).